



사진 : 半硬式 알미늄 導波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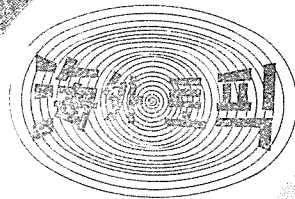
半硬式 알미늄 導波管

西獨 씨멘스社는 半硬式 알미늄 導波管을 開發했다

이 導波管은 矩形管으로 管을 任意로 구부릴 수 있고 꼬일수도 있어 어떠한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설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

도파관 테두리에 집결되어 있는 단락부위를 안테나 설치에 이용하며 3GHZ 이상 초단파 조절 통신기 계전기 조직에 사용된다. 純粹 알미늄 Siral 도파관은 전자조정없이 강제외 표준도파관의 통신주파수를 초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—(씨멘스 제공)—



高速走行的 油壓트럭 · 크레인

英國의 Jones Cranes社는 들어올리는 힘이 36톤과 25톤의 2種의 油壓트럭 · 크레인을 製品化했다.

이들 트럭 · 크레인은 최고 시속 61km의 速度로 走行하기 때문에 作業現場간의 移動이 신속하다.

두 機種 다같이 作業現場에서는 每分 50mm 이하로 調整할 수 있다.

大型크레인은 貨物을 精確히 차리잡게 해주는 感度높은 테리 調整장치를 갖추고 있다.

두 크레인에는 모두 直徑 20mm의 鋼製와이어 · 로프를 184m 까지 감을수 있는 윈치 · 드럼을 갖추고있으며 大型크레인에는 30t 小型은 21t까지의 重量物을 들어 올릴 수 있다.

또 兩機種에는 安全負荷表示裝置로서 昇 全長에 대해 메모리 系를 갖춘 小型 컴퓨터를 採用하고 있다.

標準機器로서 音聲과 可視警報장치가 있고 10%의 過荷重이 되면 크레인은 自動的으로 作動을 멈추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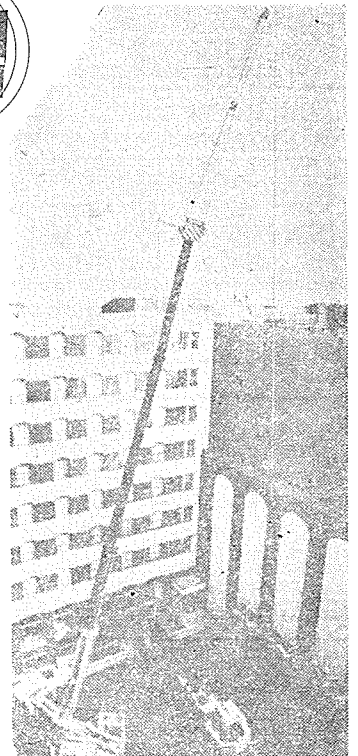


사진 :

高速走行 油壓 트럭 · 크레인

— 藥劑 · 種子 등의 撒布裝置 開發 —

除草劑나 殺虫劑를 고루 撒布할 수 있는 에어 프로우식 撒布장치가 英國 Horstine Farmery社에 의해 開發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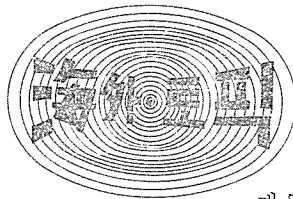
이 裝置는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고 에이커당 겨우 10파운드의 顆粒狀物質을 살포할 수 있는 8개의 精密노즐과 容量 0.2m²의 호파로 構成돼 있다.

모든 노즐이 붙어있는 9.75m의 어깨는 時速 8km로 移動하기 때문에 1시간에 19.2a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.



사진 : 에어프로우식 撒布장치

第 5 次 原子分光學
國際會議



原子吸收分光機 公開

오는 8月 25日~27日 까지 호주 멜버른에서

제 5 차 原子分光學 國際會議가 開催된다.

이 會議 의장인 호주 CSIRO의 化學物理分野 研究責任者인 Alan walsh 博士는 開會演說에서 原子分光學에 관한 發表와 原子吸收分光機의 구체적인 內容을 公開하게 된다.

이 會議에는 200여명의 出席者와 200여명의 호주 대표 들이 초청된다.

原子吸收分光機는 1953년 Alan walsh 博士에 의해 시도돼 世界的으로 公인된바 있고 1962年 最初의 商業的 모델을 제시했고 그후 各種 研究 · 開發해 完成된 原子吸收分光機를 이번 會議에서 公開하게 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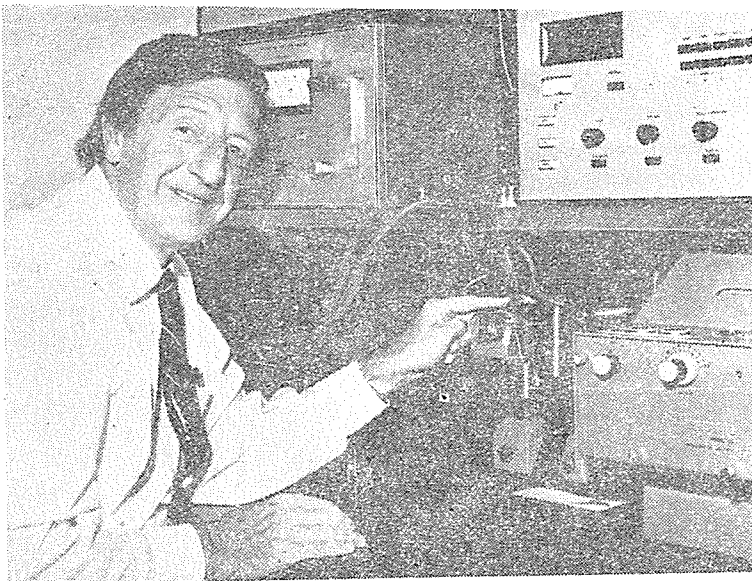


사진 : Alan walsh 博士와 原子吸收分光機